

# 지혜 ·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이

누군들 제 나이를 제대로 먹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젊어 보이기 싫어서 애를 쓰는 것이 요사이 세태이다. 예전에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잇값을 해야 한다는 말에 무게가 실렸다면 지금은 너무나 애를 주면 편이다.

젊어 보이기 싫어서 애를 갖가지 의술을 빌려서라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청춘이 되고자 한다. 아니 청춘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 그들을 가리키는 미중년이라는 말도 생겼다. 하지만 미중년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미중년이라 할 미소년이라는 말처럼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중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이다.

40대 중년이라는 외침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제야무리 걸치레로 꾸미고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바깥 소재들을 갈아치워 봐도 스스로 무시하지 못할 어떤 것이 있기에 마련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자기 나이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나이를 잊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뻗속 깊이 새겨지는 나이가 있다. 자신의 나이를 긍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나이 40이 넘으면 사회적인 활동을 했던 지안 했는지 간에, 그 동안 모아 둔 재산이나 지위, 명성, 업적 등이 있던 없던 간에 모두가 겪는 변화가 있다. 바로 심신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30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능력들은 차츰 달라지고 약해져 간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늘어가는 것도 있다. 바로 마음속 지혜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40대는 '지혜의 10년'이라고 불렀다. 인생 백년을 각각 10년씩 나누어서 생애 주기를 분석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40대야말로 가족 부양과 경제적 활동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인 동시에 50대 이후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징검다리 세대이기도 하다.

40년을 살아온 만큼 쌓인 인생의 지혜가 완숙되는 시기이지만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로서의 불안감도 높은 시기이다. 요컨대 지혜와 불안이 공존하는 임계점이 40대의 나이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땀폭조차 없이 평평하게 가는데 떠 있는 것과 진배없다고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생애 주기 중 어느 한 시기도 고통 없는 때가 없고 언제나 편치 않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저마다 인생에 따라 각자 힘든 시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대별 통계를 참조하면 40대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

몇 가지 통계 사례를 들어 보자. 먼저 들어나는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다.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기도 한 고혈압 환자들 중 40대가 50퍼센트에 가까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노



386·486으로 불리는 40대는 사회변화의 주역이면서 그 변화로 인한 혼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다. 불안한 현실 속에 40대들은 한 가정의 지붕이자 국가의 대들보로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다. 사진은 산악인 엄홍길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가족 부양 · 경제적 활동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인 동시에

### 50대 이후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징검다리 세대

속자도 40대가 가장 많다.

소음과 환경적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40대가 1위이며, 살림살이는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경우 가장 어렵다. 세대주가 40대인 가정은 가처분소득의 흑자율이 18.1퍼센트에 불과하여 세대별 가구주들 중에서 최하위인데, 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은 시기라 해서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는 44.5세이고 여자는 40.7세인데 이 나이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40대의 나이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가장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인데 그들을 잃는 고통은 고스란히 그들의 부모인 40대의 몫이다.

이처럼 몇 가지 통계 수치만 보아도 40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 것인지 짐작하기만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는 으레 '중년 가정의 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40대들은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간에, 어느 순간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낀다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기력을 잃기도 한다. 자

살은 그러한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고 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길이다.

지난 달 발표된 2009년의 자살자 통계 가운데 40대 이상의 사망률은 그나마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살자 숫자가 전년과 대비하여 19.3 퍼센트나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소 추세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더구나 40대만의 사망 원인 통계 가운데서는 자살이 2위를 차지할 만큼 큰 문제이다.

40대는 한 가정의 지붕이자 사회와 나라의 대들보라는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런 40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임계(臨界) 현상뿐만 아니라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40대는 지혜도 깊어지는 만큼 불안한 생존의 외줄 타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토록 불안하고 위태롭기만 했던 나의 40대 줄타기도 이제 몇 뼘 남지 않았다.



김미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40대 인터뷰

### 아이들 교육문제가 가장 큰 화두

손정숙 씨 "봉사활동으로 세대공감 확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들 사설 유소년 축구클럽에 지난주 등록시킨 회원 조모씨(41). 집안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만 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결심을 굳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손정숙 씨(45)는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4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 우리 사회 변화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변화로 인한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은 세대다. 40대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현실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부추겼다. 이는 '가리키 아빠', '슈퍼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손 씨는 "솔직히 자녀 교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대인 남편은 무조건적인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위 세대들은 군사정권 하의

교육체제에서 자라 위계질서에 익숙하고 보수적인데 비해 40대 이하 세대는 진보적이어서 오는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날 30대 엄마들에 비해 뒤쳐진 정보력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정보 습득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손 씨는 "30대에는 내 집 장만, 육아와 같은 내 문제, 내 주변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40대가 되며 사회 체제와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40대 중반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손 씨는 "퇴직 후 사업을 구상하면 주변 지인들이 점차 나이를 먹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 '팔라'를 아세요?

이세용 씨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이고 보살님! 아서오세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가면 경내를 찻찻령령하게 울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로 이세용 씨(조계사 종무실장, 43)의 반가운 인사 소리다.

조계사에서 일하는 만큼 이세용 씨는 스님들, 기도하기 위해 오는 40~60대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 씨는 세대 차이에 신경 쓸 때를 이해하고 좋은 모습을 본받아 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씨는 "사실 윗세대와 공감대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한다. 50~60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에 반해 40대, 그리고 아래 세대들은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것 외에는 외면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젊은 세대가 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10~30대 젊은 세대들을 만날 때 신조어를 알지 못해 적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대 친구들이 '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 물어보니, 만취한 상태를 그렇게 부른다고 답했다"며 "또 젊은 불자들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엄청나게 속도로 보내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세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하는 수밖에 없다"며 "빛을 내서라도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젊은 감각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처자주 임처개진"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주인공이 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세대 간 화합은 그 세대처럼 생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제의 신간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 한국의 재혈풍수

[1권 · 2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 재혈의 과정과 결과가 곧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학의 핵심과제이고 최종의 목표다.
- 그래서 '실룡3년, 재혈10년'의 대명제가 영원한 의미로 끊임없이 전해온 것이리라.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고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체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샅샅이 훑어낸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1권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2권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국립중앙도서관 | 새로운 滴天髓 풀이 1·2 | 육표학 핵심비결 | 新 사주학 핵심비결  
국립중앙도서관 | 신국판/양장본/70,000원 | 신국판/양장본/40,000원 | 신국판/양장본/30,000원 | 신국판/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처 대사전 | 그림 사주 대전 |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풍수 양택통론  
국립중앙도서관 | 신국판/양장본/50,000원 | 4x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 徐野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680쪽/각 권 50,000원 |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피해신청 접수안내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10·27법난 피해자들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 1. 피해신청 접수기간**  
2010. 3. 18 ~ 2011.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
- 3. 신청인의 자격**  
가. 명예회복 신청: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를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 4. 신청서 접수처**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 제출: 일과 시간내 (09:00 ~ 18:00)  
2) 우편제출: 신청기간내 도달  
나. 주소: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경기법사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1부  
나. 피해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원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 7. 심의·결정 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사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사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사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10·27법난 자료실」,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 「10·27법난 피해자신청접수안내」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02-748-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7법난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라. 접수처  
주소: (우)140-12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경기법사입회 439호  
전화번호: 02)748-5555  
마. 활용: 항후 건립될 기념관·전시관내 전시 및 자료 발간 등  
바. 기 타: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가. 자료범위: 10·27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나. 방법: 전화, 방문 수집, 우편 제출  
다. 접수기간: 2010. 3. 18 ~ 2011.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